

### 【 3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제출연월일 : 2005. 3. 15

발 의 자 : 이항원 의원 외 2인

#### □ 제안이유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우리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자리잡은  
고유의 영토이나 최근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회피함은 물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함께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으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어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아울러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의 깊은 각성을 요구하기 위함.

#### □ 주요골자

1.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에 대한 조례를 즉시 폐지하라.
2.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은 영토 침탈 야욕을 위한 군국주의적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3.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은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실시하라.
4. 정부는 독도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대책을 밝히고, 다시는 일본의 망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하라.

붙 임 :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안 1부.

##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문

양 주 시 의 회

##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안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우리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자리잡은 작은 바위섬이지만 천오백년간을  
우리 한민족이 지켜온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료는 물론 일본의 고지도와 문헌에 나타난  
사실에서도 증명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일제가 조선침략의 사전 준비로 1870년에 작성한  
조선국 교제 시말 내람서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으로  
되어 있으며,

1876년에는 일본 전국의 지적을 조사하고 지도를 편제하기 위해  
각 현에 지적조사 지시를 내린 일본 내무성은 “울릉도와 독도의  
현 소속에 포함여부”를 물어온 시마네현에 대해 역사 관제서류를  
검토한 결과 일본과는 관계없다는 결론을 내린 뒤 총리대신인  
태정관의 최종확인을 받아 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미루어 볼 때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 주고 있음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일제 침략전쟁 역사 조차도 왜곡한 교과서를 만드는 작태를 보이는 등 전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으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의 땅이라고 우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며 세계 각 국의 지지를 호소하는 치밀하고도 교활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철저히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처사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아울러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의 깊은 각성을 요구하는 바이다.

1.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은 영토 침탈 야욕을 위한 군국주의적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독도에 대한 조례를 즉시 폐지하라.
1.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은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라

1. 정부는 독도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대책을 밝히고, 다시는 일본의 망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하라

2005. 3. 17

양 주 시 의 회

## 연 명 부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란
1	양주시의회	의 장	이 상 원	
2	"	부 의 장	이 종 호	
3	"	의 원	정 창 범	
4	"	의 원	원 대 식	
5	"	의 원	이 항 원	
6	"	의 원	장 재 훈	
7	"	의 원	김 완 수	
8	"	의 원	박 재 일	